제62호 2018년 6월 7일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Contents

- 통계로 본 이슈
  - 2018년 1분기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전년대비 14% 증가
- 전문가 칼럼
  -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가능성과 과제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 인도, 러시아에서 최초로 LNG 화물 수입
  - 러시아 경제발전장관, 러·일 경제협력 활성화 위한 의견 제시
  - 러시아, 극동러 항만 통한 고철 수출 중단 예정
  - 러시아, 일본과 협력해 유라시아 철도 연결성 확대 추진
  - 푸틴 대통령, 오는 9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공식 초청
  - 러 정부, 극동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부문 발전 지원
- 주요 통계
  - 2017년 1분기/2018년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 항만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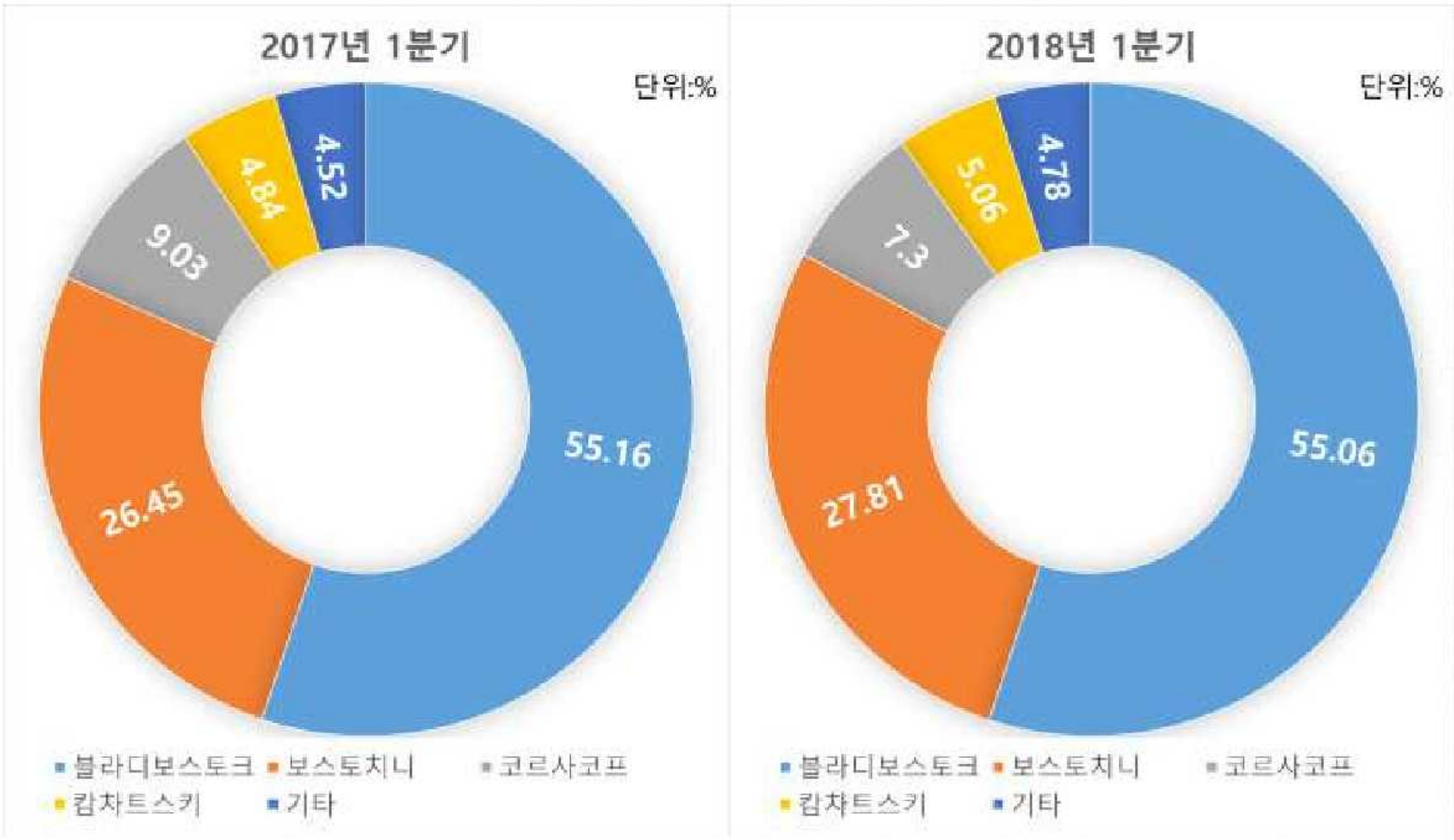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총괄: 박성준 러시아센터장 △감수: 길광수 명예연구위원 △tel:+82-51-797-4774

통계로 본 이슈

2018년 1분기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전년대비 14% 증가

2017년/2018년 1분기 러시아 컨테이너 처리량 비교



자료: http://infranews.ru/(검색일: 2018년 5월 23일)

- 2018년 1분기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작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35만 7,630 TEU를 기록했음
  - 작년 동기 대비 연안은 약 8% 증가했고, 수입 컨테이너는 25% 증가한 11만 5,280 TEU, 수출 컨테이너는 14.4% 증가해 약 11만 TEU에 달했음
  - 반면, 환적 컨테이너는 11.6% 감소한 1만 3,330 TEU를 기록함
  - 컨테이너 처리량 구성비는 연안이 33.1%, 수입 32.4%, 수출 30.8%임

- 극동지역 항만은 1만 6,150 TEU의 냉동컨테이너를 처리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대비 15.2% 증가한 것임
- 연안용 냉동컨테이너는 18% 증가해 총 1만 720 TEU를 기록했고, 수출용 냉동 컨테이너는 1,180 TEU로 작년 동기대비 2배 증가했음

참고자료 : http://infranews.ru/logistika/more/51384-kontejnernyj-otchet-za-1-kv-2018-goda-ch-5/ (검색일: 2018년 6월 5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제62호 2018년 6월 7일

전문가 칼럼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가능성과 과제

국민대학교 **이상준** 교수

파리기후변화 협약 체결 이후 보다 청정한 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천연가스는 에너지 시장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품이 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은 단순히 지역시장의 합계로서 기능했다. PNG를 중심으로 국제거래가 진행되면서 역내 중심의 교역구조와 자유로운 거래는 제한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천연가스 소비규모는 연간 3,500Bcm이고 LNG의 비중은 아직 10%에 불과하다.[1] 하지만 LNG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천연가스 교역은 LNG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천연가스는 PNG에서 LNG로 점차 변하는 추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2] 이미 장기계약이 주를 이루던 천연가스 시장에 현물시장거래(spot transaction)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 교역의 지리적인 범위도 전세계로 확대되고 교역 지도도 그만큼 복잡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역내 에너지 생산이 없는 이유로 다른 경쟁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구입했다. 그간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급은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LNG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선호도와 일본의 원전 재가동이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소비 증가를 낮추는 요인이지만

1) Erokhin, Alexey, LNG market: trends that will shape the future, 제8차 극동포럼 발표자료, 블라디보스톡, 2018년 5월 16일.

2) 이대식, Energy Mix Change & USA,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 세미나 발표자료, 상트페테르부르크, 2017년 6월 9일.

동북아 국가의 천연가스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동북아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수출을 시작한 미국과 신동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러시아가 동북아 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이유는 에너지를 이용한 강대국 러시아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중국과 가격 협상을 종료하고 건설하기 시작한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이 완공되면 러시아의 동북아 천연가스 수출시대는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가스관 건설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야말반도, 동시베리아, 극동, 해상 대륙붕에서 천연가스를 신규 생산하여 연간 생산량을 2014년 639Bcm에서 2035년까지 805~885Bcm으로 40%이상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3] 천연가스 수출을 PNG로만 진행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LNG 수출 비중을 크게 늘리는 수정된 에너지 전략 2035를 수립했다.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할린과 북극에서 LNG 생산을 늘리고 이를 아태 지역으로 적극 수출하는 것이다. 에너지 전략 2035에서 러시아는 2035년까지 전체 가스 수출에서 LNG 수출 비중을 23%까지 늘릴 계획이다.[4] 이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LNG 수출 자유화'법을 도입했고[5] 야말 LNG 프로젝트에는 특별 세제 혜택·자금조달·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규제는 풀고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 되겠다는 러시아의 비전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늘어난 천연가스 생산의 상당부분은 아태지역 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북극 기단 LNG 등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블라디보스톡, 페초라, 극동에 LNG 가공설비를 구축해 동북아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LNG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작년 초까지 러시아가 보유한 LNG 수출 기지는 사할린2(연간 13Bcm)가 유일했으나 작년 말 야말 1트레인(연간 7.5Bcm)에서 LNG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LNG 생산과 수출 가능 물량은 크게 증가했다. 2019년까지 야말 2, 3트레인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3) 전기신문, 「가스공급 다변화, 에너지 안보 차원서 안정성 확보된 러시아 PNG수입 유리」, 2017년 9월 25일.

4) 이주리(2015),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와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7호, p. 13.

5) 가스신문, 「러시아, LNG 수출 단계적 자유화」, 2013년 2월 20일.

연간 15.5Bcm, 2021년 사할린2의 3트레인에서는 연간 7.3Bcm이 추가적으로 생산될 것이다.[6] 러시아 천연가스의 아태지역 비중은 2014년의 7%에서 2035년 35~45%까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가 아태지역으로 수출하게 될 2035년 천연가스 규모는 128Bcm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2014년과 비교해 8배가 증가한 규모이다.

한국은 현재 사할린 2에서 연간 2Bcm(약 150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며[7] 한때 2.65Bcm(약 2백만톤)을 수입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대책,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와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천연가스 규모는 약 750만톤(약 10Bcm)으로 추정되고 있다.[8] 러시아는 한국의 장기계약이 끝나는 2023년 이후 한국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늘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으로 가스관이 건설 완료되고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에너지 수출에 있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북핵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는 LNG일 것이다.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발생하는 물량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수급안정성과 경제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결국 LNG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물량을 나누어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상쇄하기 위해 배정하는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 물량과 LNG쇄빙선 수주, 북극 항만 인프라 건설 참여 및 에너지 부문 업스트림 진출을 위해 배정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물량 균형을 통해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규모는 결정될 것이다. 아래의 비례식은 한러 가스협력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rac{\text{대미무역수지흑자}}{\text{미국셰일가스수입물량}} = \frac{LNG\text{쇄빙선수주} + \text{북극항만개발} + \text{에너지업스트림참여}}{\text{러시아천연가스수입물량}}$$

6) Erokhin, Alexey, LNG market: trends that will shape the future, 제8차 극동포럼 발표자료, 2018년 5월 16일.

7) 연합뉴스, 「허시아, 한국과 사할린 LNG 공급 대폭 확대방안 논의」, 2017년 9월 7일.

8) 이흥복, 한국가스공사 소개,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 세미나, 2017년 6월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나 한러 천연가스 협력은 이러한 비례식에 따라 단순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있다.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가스전 개발이 제때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경제성도 좋고 운송구간도 짧은 사할린 LNG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 한국이 확보할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변수이다. 그리고 LNG 시장이 점차 현물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하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경로의존적 타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접근법이다. 중국과 일본은 에너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그 대가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러 제재국면에서 매우 유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지형이 크게 변화되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과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논의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경제적인 논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안보적 이익도 커질 수 있다. 국제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PNG를 건설하고 이에 따른 통관 비용을 현물 혹은 연관되는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러 천연가스 협력은 시간을 축으로 단, 중, 장기로 구분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사할린에서 LNG를 구입하면서 중기적으로 북극 LNG(야말, 기단) 사업에 참여해 LNG 시설 건설 참여, 에너지 가공 산업 투자 등 한러 에너지 가치사슬 연계형 투자를 통해 양국 천연가스 분야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적 기반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스관 연결을 통해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물량은 현재로서 그리 크지 않아 러시아 입장에서도 적어도 10Bcm은 되어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NG와 PNG 수입이 결합될 수 있다면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어 한국은 천연가스

수입국이지만 천연가스 허브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한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인도, 러시아에서 최초로 LNG 화물 수입

- 세계 4번째의 LNG 수입국인 인도는 수입 다변화의 일환으로 러시아 LNG 화물을 장기간에 걸쳐 수입할 예정
  - 인도 국영 가스회사 GAIL India Ltd는 Petronet LNG Ltd 수입 터미널을 통해 러시아 최대 LNG 국영기업 Gazprom으로부터 LNG 화물을 수입할 예정임
  - 인도는 최근 미국과의 장기간에 걸친 LNG 수입협정 체결 및 첫 수입 이후, 곧바로 러시아 LNG 수입을 결정했음

- 인도 GAIL은 러시아 Gazprom과 LNG 수입 계약 조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협상
  - GAIL 회장 B C Tripathi씨는, Gazprom으로부터 LNG 수입 계약 1년차(2018~19년) 50만 톤, 2년차(2019~20년) 75만 톤, 3년차(2020~21년) 150만 톤으로 수입 물량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힘
  - 당초의 LNG 수입 계약 조건은 20년간 연간 250만 톤이었으나, GAIL은 4년차부터 250만 톤 전량 수입하기로 재협상했음
  - GAIL과 Gazprom의 재협상 결과, 계약기간 3년 연장, LNG 600만 톤 추가 구매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음
  - 이러한 재협상의 배경에는 원유에서 브렌트에 이르기까지의 물가지수 변동과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 등의 요인이 있음
  - 또한 인도는 당초 바렌츠 해 Schtokman 프로젝트에서 LNG를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셰일 가스 혁명의 영향으로 주요 고객층이 해체됨으로써 Gazprom과의 계약이 성사되게 되었음
  - Gazprom은 북극반도 Yamal LNG 프로젝트에서 LNG를 공급할 예정임

- 인도는 세계 굴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에 중점을 둔 수입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기존의 미국, 호주 등과의 LNG 수입 계약에서 탈피하고, 금번의 러시아 Gazprom과의 계약 등 수입 다변화 정책을 통해 수입 물량 확보와 가격 절감에 성과를 내고 있음

참고자료 : http://www.bunkerportsnews.com/News.aspx?ElementId=b91d8dd4-8106-41f7-85c8-7703ccd836e8 (검색일: 2018년 6월 4일)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러시아 경제발전장관, 러·일 경제협력 활성화 위한 의견 제시

- 러시아의 막심 오레스킨(Maxim Oreshkin) 경제발전장관은 일본 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일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러·일 간의 8대 경제협력의 성과로 양국 교역액은 2017년에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18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15% 증가함
  - 특히 미츠이물산(三井物産)의 의약품 기업에 대한 자금 출자와 북극해 지역의 LNG 플랜트 건설 참가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그리고 최근에는 중점 분야로서 노동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측에서는 러·일 경제협력의 성과가 미미하고, 극동 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對러시아 투자의 2%에 그친다는 불만도 있음
  - 일본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은 중국 시장 진출에 비교해 상당히 적은 편이고, 이는 새로운 시장에 대해 일본 기업의 의사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 일례로 러·일 간 MOU를 체결해 하바롭스크 공항 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했으나, 일본 측의 늦은 의사결정과 러시아 측의 신속한 추진 요구 등의 의견차이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 러시아는 일본 측에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러시아는 향후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고, 투자 리스크 감소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음
  - 2014~2015년 유가하락의 경제 위기에도 러시아는 경제 개혁을 통해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된 성장을 이루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그리고 러·일 경제협력의 경우 러시아 정부 투자기금과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의 공동 기금(10억 달러)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노동 인구 감소에 대응해 도요타 등의 일본기업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참고자료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0821790S8A520C1FF8000/(검색일: 2018년 6월 5일)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677, chnayoung@kmi.re.kr

러시아, 극동러 항만 통한 고철 수출 중단 예정

- 러시아는 올해 7월 21일부터 6개월간 극동지역 3개 주요 항만을 통한 고철(ferrous scrap) 수출을 중단할 예정임
  - 2019년 1월에 만료되는 이 법안은 매년 백만 톤 이상 거래되는 고철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대부분의 고철은 프리모르스키(Primorye)의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항, 나호트카(Nakhodka)항 및 슬라비앙카(Slavyanka)항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위 언급된 3개 주요항만의 고철 수출량은 연간 136만 톤에 달하며 그 중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90%를 차지함

- 주요 3개 항만 외 인근 지역의 타 항만을 통해 수출 가능성이 있어 고철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극동러시아 지역에는 3개 항만 외에도 9개의 고철 수출항만이 존재하나, 프리모르스키 지역보다 북쪽에 위치함에 따라 주요 수출국인 한국과 거리가 더 멀어져 보다 높은 운송비를 부담해야 함
  - 2017년 기준 해당 9개 항만은 극동러시아 지역 고철 수출량 140만 톤 중 3%만을 처리하는데 그치는 등 처리물동량 역시 많지 않은 실정임

- 극동러시아 지역에는 Amurmetall, Magnitogorsk Iron and Steel Works 및 Evraz 등의 철강생산업체가 존재하며 고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Amurmetall에 따르면 100만 톤의 철강 생산을 위해서는 10만 톤의 고철을 활용하고 있으나 수출로 인한 고철 유출로 철강 생산량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었음
  - 따라서 고철 수출 제한으로 유출을 막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려되어짐

참고자료 : https://www.platts.com/(검색일: 2018년 6월 4일)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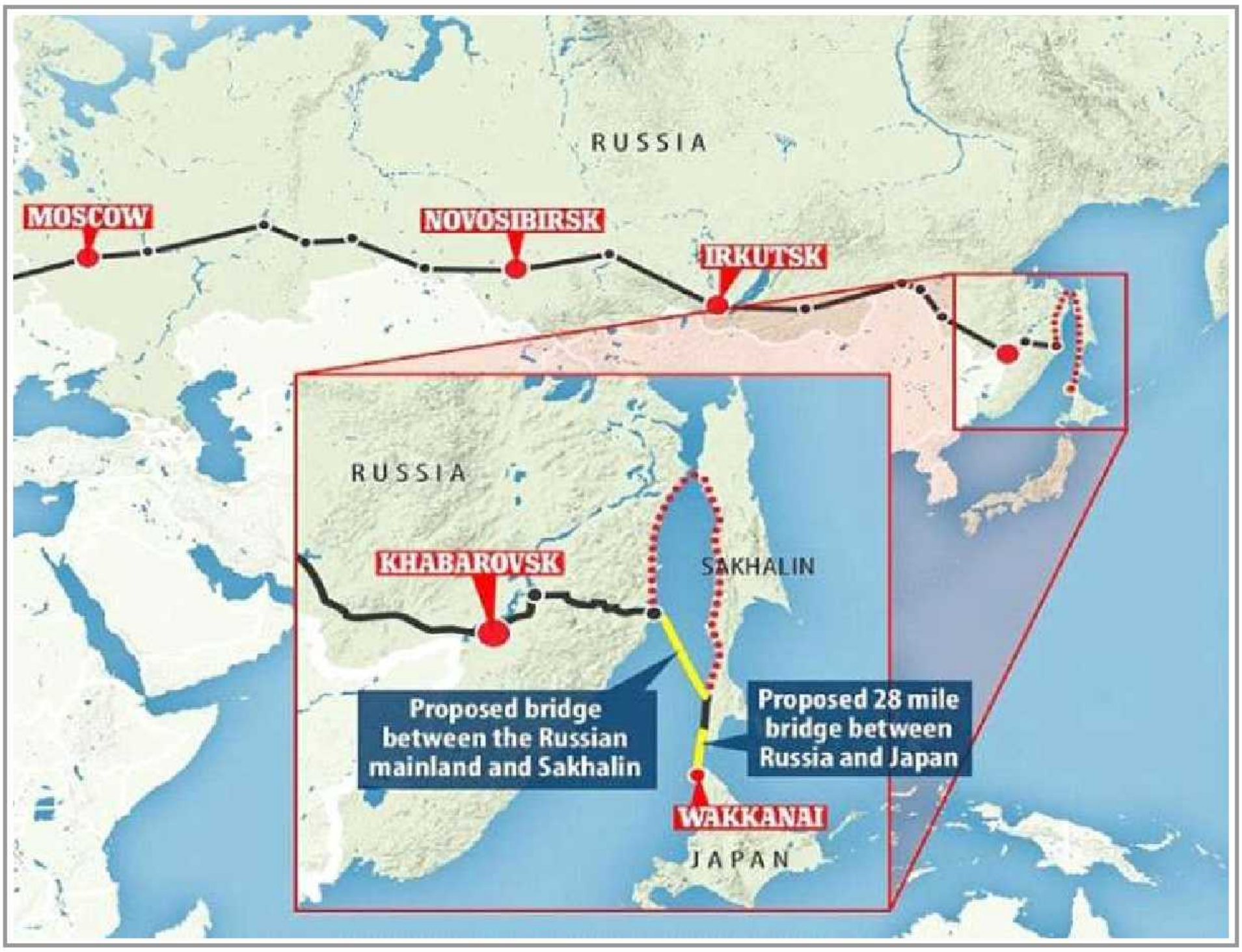
러시아, 일본과 협력해 유라시아 철도 연결성 확대 추진

- 러시아 철도청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물류시장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러시아 철도청(Russia Railways)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Oleg Belozerov 씨는 지난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 경제 포럼에서 극동지역 내 철도 물류 확대를 위해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러시아 철도청의 지주사인 RZD는 일본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극동 지역 및 유라시아 철도의 개발 및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일본과 러시아의 연결성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내 높은 화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동량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욱 기대됨
  - 현재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운송되는 전체 화물량의 약 1/3을 일본이 차지하는 만큼 러시아 물류시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
  - 또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일본을 오가는 화물이 2016년 약 4천만, 2017년에는 10% 증가한 4천 4백만 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화물의 증가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철도청은 연결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운과 철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언급한 바 있음
  - 러시아와 일본의 연결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연결해 일본, 러시 아 및 유라시아 전체를 하나의 물류시장으로 결합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구현될 경우 두 지역 간 연간 3천만 톤이 넘는 화물이 운송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러시아 철도청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및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러-일 간 시베리아 횡단철도 확대 프로젝트



자료: http://seanews.ru(검색일: 2018년 6월 1일)

참고자료 : http://en.portnews.ru/(검색일: 2018년 6월 1일)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푸틴 대통령, 오는 9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공식 초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우)

자료: www.yandex.ru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오는 9월 11~13일부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러시아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이 같은 초청 의사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힘

  - 북한을 방문한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방러 초청장을 전달하며, 방러 계기 중의 하나로 동방경제포럼을 언급했다고 함

- 푸틴 대통령 친서에 대해 김 위원장의 답신은 아직 없다고 소개하며, 북한 측으로부터 공식회신이 오면 외교채널을 통해 제반조건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힘

- 앞서 멜리니코프 러시아 하원 제1부의장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의회주의 발전 국제포럼'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과의 면담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방북한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방러를 요청했다고 소개한 바 있음

- 또 다른 일각에서는 9월 동방경제포럼 이전에 러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러시아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반도 문제 해결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북러 정상회담 일자를 동방경제포럼에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더 일찍 열릴 수도 있으며, 또한 공개행사로 진행되는 동방경제포럼은 북한 지도자에게 적합한 곳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함
  -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선택될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참고자료 : https://www.dv.kp.ru/daily/26838/3878859/ (검색일: 2018년 6월 5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러 정부, 극동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부문 발전 지원

▪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투자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및 극동지역으로의 인구유치를 위한 사회·문화 방면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음

- 2018년 2월 14일 러시아 연방정부는 9개 극동연방관구에 대한 사회분야 개발 계획을 발표함

- 이에 따라 극동연방관구 대표 유리 트루네프씨는 총 195개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현대화를 승인했으며 약 558억 루블의 지원자금을 할당할 계획임

- 극동지역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은 연방 및 지역정부 예산, 29개 국가프로그램[9] 등을 통해 할당됨

- 현재 각각의 국가프로그램에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극동섹션'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교육, 건강, 교통 시스템, 주택 등의 분야 개발 및 발전 자금으로 약 6,000억 루블이 할당됨

- 또한 '사할린-2'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을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올해 3월 19일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한 예산집행을 승인함

-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조치에 따라 극동지역 사회기반시설 창출이 가속화 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기반시설은 극동연방관구마다 경제성장 중심지역(이하 중심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에 건설될 계획임

- 중심지역은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극동 헥타르 등을 통해 현재

9) 본 사이트에 러시아 국가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음, http://programs.gov.ru/Portal/

극동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는 곳임

- 현재 극동지역에는 약 41개의 중심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같은 지역에 인구 유치 및 확보를 위해 사회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임

▪ 중심지역에서 건설 및 현대화 될 사회기반시설은 보건, 교육, 문화, 스포츠, 주택 및 미화, 운송, 극동 헥타르 등 총 7가지 방향으로 개선될 계획임

- 정치·사회 연구 소장 브야제스라프 스미르노프(Vyacheslav Smirnov)씨는 극동지역으로 많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극동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는 극동지역 개발과 같이 극동지역의 사회적 영역에서도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모든 극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블라디보스토크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봄

▪ 중심지역에 구축될 195개의 사회기반시설은 극동연방관구 주정부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각각의 지역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이함

- 페트롭파블롭스크-캄차트카의 경우 지난 10년간 자금부족으로 인해 지역 병원을 건설할 수 없었으며 야쿠츠크 네르윤그리(Yakutsk Neryungri)는 소아병원을 건설할 수 없었음

- 장기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 외에도 사회기반시설 개선에는 극동 헥타르도 포함되어 있음

- 극동 헥타르의 경우 정착에 필요한 부분 중 우선순위에 따라 도로 및 전기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게 됨

▪ 극동연방관구별 중심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현대화에 지원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음

- 하바롭스크 변강의 경우 총 14개의 시설에 약 100억 루블이 지원됨: 주택 및 미화(약 4억 6,200만 루블), 극동 헥타르(약 3억 1,900만 루블), 보건(약 54억 루블), 스포츠(약 26억 루블), 운송(약 13억 루블), 교육(약 5억 5,700만 루블)

- 아무르주의 경우 총 30개의 시설에 약 56억 루블이 지원됨; 보건(약 2억 9,100만 루블), 교육(4억 7,800만 루블), 주택 및 미화(약 46억 루블), 스포츠(약 1억 7,600만 루블), 문화(약 5,200만 루블)

- 사할린주의 경우 총 101개의 시설에 약 260억 루블이 지원됨: 전력시설(약 21억 루블), 교육(약 51억 루블), 주택 및 미화(약 95억 루블), 보건(약 4억 3,400만 루블), 운송(약 46억 루블), 스포츠(약 43억 루블), 문화(약 5,440만 루블)[10)]

- 연해주의 경우 총 19개의 시설에 약 51억 루블이 지원됨: 교육(약 20억 루블), 보건, 약 19억 루블), 스포츠(약 9억 800만 루블), 문화(약 2억 6,100만 루블)

- 캄차트카 변강의 경우 총 3개의 시설에 약 47억 루블이 지원됨: 교육(약 7,100만 루블), 보건(약 43억 루블), 스포츠(약 3억 5,600만 루블)

- 사하공화국의 경우 총 7개의 시설에 약 17억 루블이 지원됨: 보건(약 1억 500만 루블), 극동 헥타르(약 8,200만 루블), 교육(약 9억 5,600만 루블), 주택 및 미화(약 3억 9,600만 루블), 스포츠(약 2억 1,000만 루블)

- 마가단주의 경우 총 5개의 시설에 약 7억 루블이 지원됨: 보건(약 1억 7,000만 루블), 스포츠(약 4억 2,400만 루블), 교육(약 5,900만 루블)

- 유대인 자치주의 경우 총 5개의 시설에 약 7억 루블이 지원됨: 교육(약 1억 5,500만 루블), 전력시설(약 1,800만 루블), 보건(약 3억 5,700만 루블), 주택 및 미화(약 1억 3,300만 루블), 문화(약 300만 루블)

- 추코트카 자치구의 경우 총 5개의 시설에 약 6억 루블이 지원됨: 교육(약 8,600만 루블), 보건(약 2억 8,500만 루블), 주택 및 미화(약 1억 6,300만 루블), 스포츠(약 2,900만 루블)

■ 투자·개발 등과 같은 경제 분야의 발전과 함께 사회·문화 등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10) 사할린주의 지원금 중 약 67억 루블은 쿠릴열도에 병원, 학교, 스포츠 및 피트니스 센터 등의 건설에 사용될 계획임

삶과 직결되는 분야도 개선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부분이 개선되어야만 극동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확대될 것이며 러시아 정부가 원하는 극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이번 극동지역에서의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은 향후 계속해서 추가·보완될 예정임
- 현재 연방정부에 의해 약 684억 루블이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할당되었으며 이 중 약 558억 루블이 각 지역으로 분배됨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14478/(검색일: 2018년 6월 4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주요 통계

2017년 1분기/2018년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 항만별 비교 (단위:천 TEU,%)

구분			2017 1분기	2018 1분기	2018/2017	점유율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수출	LC	24.11	26..84	11.30	38.70
		공컨	36.39	42.54	16.90	61.30
		소계	60.49	69.37	14.70	100 *(35.40)*
	수입		62.3	77.95	25.10	*(39.70)*
	환적		5.07	0	-100	*(0.00)*
	연안	LC	25.1	27.51	9.5	56.40
		공컨	19.01	21.27	11.9	43.60
		소계	44.13	48.78	10.50	100 *(24.90)*
	합계		171.99	196.11	14.00	**54.80** *(100)*
	Commercial Port of Vladivostok		94.5	110.87	17.30	**56.50**
	Vladivostok Sea Fishing Port		34.24	37.12	8.40	**18.90**
	Pacific Logistic		17.61	22.36	27.00	**11.40**
	기타		25.63	25.75	0.50	**13.10**
보스토치니 항만/ Vostochnaya Stevedoring Company	수출	LC	26.1	30.13	15.40	76.80
		공컨	7.16	9.08	26.70	23.20

		소계	33.27	39.21	17.90	100 *(27.80)*
	수입		29.12	37.13	27.50	*(37.30)*
	환적	LC	9.64	11.11	15.30	84.00
		공컨	0.16	2.11	1,249.90	16.00
		소계	9.79	13.22	35.00	100 *(13.30)*
	연안	LC	4.86	4.85	-0.40	48.30
		공컨	5.31	5.19	-2.20	51.70
		소계	10.17	10.04	-1.30	100 *(10.10)*
	합계		82.36	99.6	20.90	**27.80** *(100)*
코르사코프 항만/ Commercial Port of Korsakov	**수출**	LC	0.08	0.05	-43.20	3.70
		공컨	1.97	1.2	-39.00	96.30
		소계	2.05	1.25	-39.20	100 *(4.80)*
	수입		0.59	0.27	-54.00	(1.00)
	연안	LC	13.54	12.62	-6.80	51.50
		공컨	12.73	11.9	-6.60	48.50
		소계	26.27	24.51	-6.70	100 *(94.20)*
	합계		28.91	26.04	-9.90	**7.30** *(100)*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항만	**수출**		0.24	0.17	0.00	*(0.90)*
	수입		0.05	0.04	-26.90	*(0.20)*
	연안	LC	9.15	10.8	18.10	58.00

		공컨	6.54	7.81	19.40	42.00
		소계	15.69	18.61	18.6	*100* *(98.90)*
	합계		15.99	18.81	17.70	**5.30**
기타 항만			14.34	17.09	19.10	4.8
극동지역 항만	**수출**	**LC**	50.68	57.26	13.00	*(52.00)*
		: 냉동	0.62	1.18	89.40	2.10
		공컨	45.52	52.82	16.00	*(48.00)*
		소계	96.2	110.08	14.40	**30.80** *(100)*
	수입	**LC**	9.95	115.36	26.80	*(99.60)*
		: 냉동	4.26	4.26	-0.10	3.70
		공컨	1.71	0.43	-75.00	*(0.40)*
		소계	92.66	115.78	25.00	**32.40** *(100)*
	환적	**LC**	14.9	11.21	-24.80	*(84.10)*
		공컨	0.19	2.12	1,093.80	*(15.90)*
		소계	15.08	13.33	-11.60	**3.70** *(100)*
	연안	**LC**	60.64	65.16	7.5	*(55.00)*
		: 냉동	9.14	10.72	17.30	*16.40*
		공컨	49	53.28	8.70	*(45.00)*
		소계	109.64	118.44	8.00	**33.10** *(100)*
합계			**313.58**	**357.63**	**14.00**	**100**

자료: http://infranews.ru/(검색일: 2018년 6월 5일)